

아세안 · APEC 정상외교 시작

문 대통령, 싱가포르 · 파푸아뉴기니 순방

14일 한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시작 공식 일정 소화
신남방정책 1주년 성과 · 포용국가 실현 이행계획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 ·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 · 파푸아뉴기니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싱가포르를 향해 출국했다.

공황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배웅했

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 편으로 출국한 문 대통령은 6시간 여 비행 끝에 오후 4시10분께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첫날은 휴식을 취한 채 이튿날 14일 제20차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신 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 성과를 설명하면서, 포용국가를 실현할 '사방

중심의 상생 번영을 통한 평화 공동체 조성'이라는 '3P(People · Prosperity · Peace)' 비전에 대한 상세한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 러 정상회담을 가지며 하짜날 볼카이 브루나이 국왕과 한 · 브루나이 정상회담, 통론 시슬릿 라오스 총리와 한 · 라오스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내년 한 · 아세안 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 정책의 이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1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한 · 메콩 정상회의' 첫 개최 희망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도 개최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인 아태지역 무대로 한 거대한 자유무역협상(FTA)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4차례 공식협상과 12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작년 정상들이 제시한 '2018년 실질타결지침 달성'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와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싱가포르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16일엔 다음 순방국인 파푸아 뉴기니로 출국한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해 말리키오스만 싱가포르 외교 및 국방담당 선임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새만금상설공연 '해적2' 막바지 무대

17일 폐막공연으로 마무리
재즈밴드 Do&Be Sound
공연 등 이벤트도 준비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 새만금상설공연 '해적2'가 오는 17일 폐막공연을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무리 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폐막공연에서 본 공연외에도 야외마당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전라북도의 대표 재즈밴드인 Do&Be Sound의 공연과 폐막이벤트 행사 등 부대행사도 준비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적2'는 새만금 관광명소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개양할미 설화, 풍어제 등)을 활용한 판타지 러브스토리로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연상품이며 2014년도에 시작한 '아리울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다.

'아리울 스토리'는 아리울이라는 판타지 공간에서 해적 영왕으로 인한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아리공주와 미르장군과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 군주로 거듭나는 아리공주를 표현한 극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잘 살린 연극 작품이다.

재단에 따르면, 새만금의 유일한 문화시설인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1만4,000여 명이 이를 관람했으며 다양한 부대행사의 참여인원까지

합하면 3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밖에도, 재단은 또한, ▲키즈 페스타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남만콘서트 장미여관 ▲아리울 가을이야기 최백호 미니콘서트 등 시즌 내내 기획공연 및 외부특별공연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더불어, 재단은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공모로 선정된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거리공연을 10~11월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동시에, 새만금 상설공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외부공연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공연 ▲전국청소년 연극제 폐막 축하공연, ▲새만금 노마드축제 공연 ▲양대체전(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안치식 및 출발식 ▲문화재단 특별공연 등 도민에게는 문화공연 향유의 기회를 행사를 찾아온 외부 관광객에게는 우수한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전북 '문화의 힘'을 다양하게 보여줬다는 평이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내년을 위해 2019년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아리울을 준비했다.

한편, 오는 17일 이번 폐막공연은 전화예매를 통해 선착순 200명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82)으로 문의 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혁신'의 답, '새만금'에서 찾는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공 추진 현장점검 나서
도내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도... "중소기업에게 대안 마련 기회 제공할 것"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국회의원)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규제 점검에 나섰다.

13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전방과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등에 의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추미애 위원장

을 비롯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김민준 군산시장, 채정룡 민주당 군산지역 위원장 김성준(남서울대 교수, 혁신성장추진위원회 민간위원)와 중앙부처 관계자와 등이 동행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현장 시찰을 마친 추미애 위원장은 자리를 옮겨 신시도에 위치한 33센터로 이동,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보고 받고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정치 논리에 혁신의 길은 막혀 있었던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새만금이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메카로 거듭날 새만금은 전북의 비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의 한국GM과 군산조선소 폐쇄는 지역민들에게 실업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신 재생에너지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대안 마련의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성장추진 위원회는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추 위원장은 또 새만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에서 발목잡기 식 정치논리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하진 지사 역시 "새만금은 더 이상 정치적 재물이 되지 않아야 하며 앞으로 30년이나 50년을 또다시 기다려서는 안되는 만큼 전북이 아닌 대한민국의 일이라는 점을 더욱 확고하게 인식해서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靑 "美 CSIS 보고서 새로운 것 없어... 북미 대화 필요성 부각"

청와대는 13일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물 지역에서 최근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 반면,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SIS 보고서에는 지난 3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물 인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기지를 최근까지 운영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CSIS의 '신고되지 않은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인공위성 사진은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기만 전술을 펼

쳐왔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NYT 기사 내용 중에 '기만(great deception)'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삭간물)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아니고, 그런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과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며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 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 주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